



2024년 / 5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5월 14일(화)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5월 15일(수) : 석가탄신일 휴무

■ 연구원 소식

- 전주시 인문주간 공동기획 강좌 안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인문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일상에서 손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문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기획행사에 참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16시~18시

장소: 전주대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소설가가 들려주는 한옥이야기 -한옥이 나를 소설가로 만들었다-

강사: 소설가 황지호

대상: 회원 및 시민

장소 관계로 스무 분 정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도 긴급했을까? - 긴급조치 9호 선포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를 근거로 단행된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1호를 시작으로 유신헌법 반대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5년 4월 11일 서울대에 다니던 김상진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항거해 서울 농대 교정에서 열린 자유성토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선언문을 읽고 할복한 후 이튿날 숨을 거두었다.

그 후 긴급조치 완결판이라 불리는 긴급조치 9호가 5월 13일 선포되었다. 제1조부터 14조까지 구성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구속되고(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도 아니건만 시장과 도지사가 군병력 출동을 요구하면 군인이 달려가 지원할 수 있는... 더하여 이 조치에 따른 장관의 명령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장 앞서 이야기된 김상진이 절명한 뒤 한달 여만에 열린 <김상진 열사 추도식>에서 긴급조치 9호 철폐를 외친 학생집회 이후 한심석 서울대 총장이 사임하고 치안본부장과 서울남부경찰서장이 경질되었으며 29명의 학생이 구속 수감되었다.

1979년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될 때까지 <전국토의 감옥화>, <전국민의 죄수화>라는 씁쓸한 유행어를 만들어 낸 민주주의 암흑기에 800여명이 이 조치를 위반하여 구속되었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 유영봉 교수와 함께 걷는 DMZ 이야기

경기평화누리길 제 7구간 - 1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반구정 앞에 모인 회원들의 구호가 우렁차다. 아침부터 날씨가 뜨겁다지만, 13.4km를 눈앞에 둔 일행은 여전히 씩씩하다. 평화누리길 8구간을 알리는 아치형 문을 통과한 걸음이 마정리로 향한다.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간단없는 철책이 임진강을 따라 행로의 왼쪽으로 이어진다. 푸른 논들이 그 안쪽을 가득 채웠다. 작열하는 햇볕 탓에 뜨거워진 논바닥의 물속에서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우렁이들이 종종 눈에 뜨인다. 풀 썩의 실잠자리도 여름 햇살을 만끽하는 중이다. 퇴약별 아래 펼쳐진 푸름 일색의 풍경화 속에서 철책만 빼놓는다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우리네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이 계속된다. 다만 장산리 입구의 대전차 장애물이 나타나 이 일대가 DMZ 구역임을 일깨운다.

어느덧 온몸이 땀으로 젖어 들더니, 발길이 장산마을에 닿았다. 두어 마리의 해오라기가 진녹색의 물결 아닌 물결을 가르고, 청아한 빠꾸기 울음소리가 여름 하늘에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뚱뚱 한 곳에서는 갓 피어난 연꽃 몇 송이가 사뭇 수줍어 연분홍으로 뺨을 붉혔다. 일상에서 끄꽂 묶어두었던 초점거리가 멋대로 풀렸으니, 눈부터 행복했다.



마을에서 장산전망대로 오르는 걸음은 쉬울 리가 없었다. 뜨겁고 가쁜 숨을 돌리는 회원들이 길바닥 중간 중간에 널브러졌다. 한 줌의 바람도 불지 않았으니, 올려다본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다. 길가의 덩굴에 맺힌 산딸기가 새빨갰다.

장산전망대는 굽어 도는 임진강을 품에 안은 곳이다. 건너편 이북 땅이 환하게 내다보이는 곳이다. 잠시나마 가쁜 숨을 잊고, 강물 위에 떠 있는 초평도를 바라보는 곳이다. '독수리전망대'라고 불리기도 하니, 멸종위기종인 80여 마리의 독수리가 경상남도 고성에서 겨울을 난 후, 파주를 거쳐 몽골로 돌아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이다.

발길은 다시 임진리로 향했다. 숲을 지나고, 논을 가로질렀다. 하늘이 잠시 흐려졌으니, 기온도 내려앉는가? 시원한 바람이 살짝 돌았다. 빠꾸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느덧 임진리에 닿았다. 이곳은 그 옛날 남북을 오가던 나그네들이라면 반드시 건너야 했던 임진나루터가 아니던가? 이제 나루터의 기능을 잃었으니, 무심한 갈매기 두어 마리만 허공을 맴돌았다.

<꺼삐딴 리>라는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 전광용 선생의 고향은 함경도 북청이었다고 한다. 선생은 수필<나의 고향>에서 빠져린 향수를 피력하였는데, 그 후반부에서는 남북이 철조망을 치고 냉혹하게 등을 돌리기 직전 몰래 고향에 다녀오다가 겪은 쓰린 경험도 함께 담았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